

“2019년 광주 세계수영대회 오세요”

조직위, 헝가리서 기자회견 대회 일정·슬로건 등 홍보 경기장 등 준비 상황 관심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2019년 7월 12일~8월 11일)의 해외 홍보가 본격화됐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윤장현 광주광역시장)가 유럽과 아시아, 아메리카 등 세계 언론을 대상으로 홍보가 나섰다.

조직위는 27일 “2017년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헝가리 부다페스트대회 주경기장인 두나 아레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최도시인 광주시와 경기장 등 대회 관련 시설, 대회 엠블럼(로고)과 마스코트 등 전반적인 대회 준비 및 진행 상황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FINA(국제수영연맹) 훌리오 마글리오네(Julio C. Maglione) 회장과 코넬 마르쿨레스쿠(Cornel Marculescu)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마글리오네 회장은 “이번 제17회 부다페스트대회는 앞으로 세계수영선수권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는 27일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두나 아레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회를 치르는 데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며 “2년 뒤 열리는 제18회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많은 환대와 친절 속에서 더 훌륭한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영국·이탈리아·러시아·미국·중국·일본 등 외신기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최도시인 광주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장 등 대회 준비 상황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조영택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 대회 슬로건인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는 광주 정신(민주, 인권, 평화)과 수영대회를 상징하는 물결의

완벽한 조화를 의미 한다”면서 “부다페스트대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도시브랜드 제고 등을 위해 경기장과 연계한 주요 관광지 및 랜드마크를 전 세계에 보여줄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식 엠블럼과 마스코트 ‘수리’와 ‘달이’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첫 선을 보였다.

제17회 부다페스트대회가 막바지에 치달으면서, 차기 개최도시를 소개하려는 해외 언론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영택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영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인 인사이더게임스(Inside the Games) 인터뷰를 시작으로, 국제종합경기대회 뉴스 전문 매체인 아라운드더링스(Around The Rings), 스포츠 전문 매체인 스포트칼(Sportcal), 헝가리 월간지 트로피칼(Tropical), 부다페스트대회 조직위원회 소식지, FINA TV 등과 잇따라 인터뷰를 갖고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 상황 등을 소개했다.

한편 제18회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208개 연맹 1만5000여 명이 참가해 경영·다이빙·싱크로나이즈 수영·수구·하이다이빙·오픈워터 수영 등 6개 종목이 남부대, 진원테니스장, 영주체육관 등에서 개최된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강기정의 독일이야기

① 연재를 시작하며

-광주에서 베를린으로



과거를 청산하고 자유를 되찾은 도시, 자유를 지키기 위해 더 나은 미래 준비하는 도시가 베를린이다. 2000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은 이곳 베를린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초석이 된 베를린선언을 발표했고, 그로부터 7년 뒤 베를린자유대가 제정한 자유상을 수상했다.

80년 5월 광주가 신군부의 총칼에 도륙되고 있을 때, 베를린에 거주하던 파독간호사들은 광주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독일 제1공영방송 ARD 기자 힌츠 페터는 목숨을 걸고 5·18을 카메라에 담아 전 세계에 전했다. 힌츠 페터의 이야기는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로 만들어져 곧 개봉이 된다. 뿐인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선생이 조각간첩사건으로 회한의 생을 보낸 곳도, 5·18을 위한 교향

탄핵 촛불을 들며 우리는 참으로 아프게 되풀이해 왔다. 이곳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앞에서 탄핵집회에 참여하고 시가행진을 할 때면, 그 고뇌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초석이 된 베를린선언을 발표했고, 그로부터 7년 뒤 베를린자유대가 제정한 자유상을 수상했다.

그런 의미에서 12년 동안의 숨겨진 정치여정을 잠시 멈추고 베를린 자유대 방문학자 코스를 밟은 것은 행운이었다. 베를린 자유대에 머무는 동안 여러 정치인과 행정가, 기업인, 연구자를 만날 수 있었고 변화의 현장을 찾았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와 과정에 대해 묻고 또 물었다. 현장에서 만난 독일은 한마디로 상생의 나라다. 갑을 관계는 없으며, 공익과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면 집권당이 바뀌어도 정책

베를린서 상생의 해법을 묻다

시 ‘광주여 영원히’를 작곡한 곳도 이곳 베를린이다. 비 내리는 베를린 거리를 우산 없이 걷다보면 이 도시는 우리와 참 깊은 인연으로 이어졌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최근의 베를린은 ‘리스타트의 도시’로 불린다. 뮌헨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유럽 각지의 젊은이들이 베를린으로 모여드는데, 그 수가 2014년에만 17만4000명이다. 지금도 꾸준히 이주해오고 있다고 하는데, 필자 역시 베를린에 머무르다 보니 왜 예술가들과 창업자들이 제기를 꾸꾸며 베를린으로 모여드는지 알 것 같다. 우선 집값이 싸고, 저렴하고 질 좋은 생필품과 식료품이 있으며, 이방인들에 대한 배려가 느껴진다. 스타트업 지원정책도 잘 돼있다. 포용과 배려는 자유도시 베를린의 또 다른 상징이 된 듯하다.

해오던 대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Rethink’, 근본부터 바뀌려는 ‘전환’이 절실한 순간에 베를린을 택했던 이유도 이런 연결선에 있다. 피와 눈물로 이뤄낸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쩌면 이리도 허약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회적 각자와 약자가 상생하고 공존하는 경제의 민주화는 왜 아직인게는 8월10일부터 이틀간 광주일자리 One-Stop지원센터에서 교통카드를 교부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은 이어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정당과 정당이, 도시와 도시가, 노사가 함께 한다. 이런 풍토 속에 나치 정권과 탈원전,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제조업 혁신이 가능했다. 정치의 상생, 경제의 민주화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한다. 또한 끊임없는 교육으로 실천력을 높여간다. 상생이 아니면 공멸이라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가 필자에게 정의와 책임을 심어줬다면 베를린은 상생의 해법을 제시한다. 광주가 흘려온 피와 눈물은 약자와 강자의 상생, 지역 간의 상생, 자연과의 상생이라는 실천을 통해 완성될 것임을 믿는다. 그 길로 가는 길목에 베를린은 유의미한 하나의 좌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강기정의 독일이야기’는 정치인 강기정이 12년의 의정활동을 잠시 멈추고, 베를린자유대학교(Free University of Berlin)에 머물며 기록한 ‘독일의 industry4.0’, 에너지, 경제, 정치 현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총 10회에 걸쳐 매주 금요일에 연재됩니다.

울곡초·용산초 안전지도

동구 주민 100명 제작 참여

광주시 동구가 어린이들과 함께 아동대상 범죄예방과 학교주변 위험환경 개선을 위해 아동 안전 지도를 제작·배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안전지도는 학교 주변의 위험요소, 사각지대, CCTV 설치 지역 등을 캐릭터와 함께 지도에 표시하고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체 형식으로 설명문을 넣은 것이 특징이다.

울곡초등학교, 용산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안전지도 제작은 전문 강사의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해바라기아동센터, 동구자원봉사센터, 동구여성친화서포터즈 회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학교 반경 500m 이내 관공서, 공터 등 안전 사각지대, 폐쇄회로(CC)TV설치지역 등 학교주변 위험환경을 조사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안전지도는 홍보용 공책으로 제작해 전교생에게 배부했으며,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에 게재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 맞벌이 부부 자녀 돌봄 40명 채용

광주시가 마을단위 ‘돌봄공동체’ 조성에 본격 나서고 있다. 광주광역시 27일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및 직장맘의 고용유지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일·가정 양립 사업의 하나로 ‘2017년 청년여성 멘토링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성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사업은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대표 오창민)이 수행하고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광주시는 멘토링 대상자 만 18~39세 청년여성으로 제한, 구직 사각지대에 놓인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채용규모는 40여 명이다. 이들은 11월까지 평일 오후 4~8시 ▲남구 송화마을 3단지(062-655-1752) ▲남구 생강역이(062-352-8944) ▲북구 동이트는(062-525-1691) ▲북구 복지예술(062-418-0988) ▲광산구 도깨비(062-962-1279) ▲광산구 지혜의샘(062-973-1191) 등 지역 작은도서관 6곳에서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와 직장맘의 초등학생 1~4학년생 자녀 120여 명을 돌보게 된다.

이에 따라 방학 기간이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어온 맞벌이 부부 등의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학습놀이 및 독서놀이 ▲공감놀이 및 정서교육 ▲평일 1회 식사 제

공 ▲자녀 병원 동행 및 위급상황 대응 등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약 3개월 간 ‘직장맘 엄마119’라는 시범 사업을 벌인 결과, 5곳의 작은 도서관에서 84명의 자녀가 서비스를 누리는 등 호응을 얻자 올해부터 정식 사업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올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초등학생은 120여 명으로 작은도서관별로 20여 명 안팎의 희망자를 모집해 구성했다. 시는 서비스를 희망하는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결원이 생기면 충원하는 방식으로 참여시킬 방침이다.

참여 아동은 1인당 월 3만원의 부담하게되며 식사 및 학습(놀이) 프로그램, 상해보험 가입 등은 수행기관에서 제공한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청년 교통비 지급 추가 모집

다음달 3일까지

광주시는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지역구직청년에게 1인당 월 6만원씩 5개월간 지원하는 교통비 지급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추가 지원 대상자는 기존 중위소득이 당

초 70% 보다 완화된 100% 이하 가구원으로, 공고일 현재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29세 미취업 청년이다. 재학생, 휴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급여자는 제외되며, 2017년 8월 및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서는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와 광주청년드림 홈페이지(https://g3dreams.modoo.at)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28일부터 8월3일까지 광주시청 1층 민원실 내 광주일자리One-Stop지원센터에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와 광주청년드림 홈페이지(https://g3dreams.modoo.at)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28일부터 8월3일까지 광주시청 1층 민원실 내 광주일자리One-Stop지원센터에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와 광주청년드림 홈페이지(https://g3dreams.modoo.at)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28일부터 8월3일까지 광주시청 1층 민원실 내 광주일자리One-Stop지원센터에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치평동 중심상가

일반물건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3억

【법원 경매/공매】

토 지	일 반 물 건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 준공업지역 개발촉진지구 토지 523평 감정가 311,000,000 최저가 311,000,000	▶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나주 봉황면 황룡리 생산관리지역 과수원 반암마을인근 토지 3251평 감정가 270,000,000 최저가 216,000,000	▶담양군 담양읍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계획관리지역 큰도로점 해안가 토지 1200평 감정가 103,000,000 최저가 103,000,000	▶서구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상업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매매가 23억
	▶서구 풍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서구 치평동 근린시설 현재 상업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입중 가능 매매가 17억
	▶서구 마북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광산구 비아동 아파트자리 토지 약 2000평 매매가 평당 280만원
	▶북구 신안동 주상복합상가 전남대정문인근 (1층, 2건) 건물 32평 매매가 3억5천 (용자 2억5천, 보증금5천, 월143만원)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전원주택 최적지 유희관인근 토지 359평 평당 40만원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층일반주택지역 무등산자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태양광가능 평당 2만원 강진 신전면 수양리 임야
	▶삼무지구 중심상권 커피전문점 6층건물 1층 50평 5천만원 월 300백 시설비 8천 조정가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택지조성 완료 대나무 생태공원조성사업 2540평 5억 5천만원
	▶나주 금천면 오강리 자연녹지 과수원 1600평 4억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